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7〉

참 부처는 내 속에 앉아있다

조주 스님이 법당에 나아가 문하대중에게 설법했다. 금속으로 된 부처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버리고, 나무로 된 부처는 불 속에서 타버리며, 진흙으로 된 부처는 물속에서 녹아버린다. 참 부처는 내 안에 앉아 있다. 보리 · 열반 · 진여 · 불성 등은 모두 몸에 입은 옷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번뇌가 될 뿐이다.

질문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 실제리지(實際理地) 따위가 어디에 붙어있겠는가. 한 마음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萬法]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다만 법리를 규명하면서 좌선하는 일만 20~30년 하라. 그래도 만일 해득할 수 없다면 내 목을 잘라가라.

꿈이나 허깨비, 공중의 꽃 같은 것을 잡으려 하는 것은 헛된 고생을 하는 것이다. 마음도 또한 다르지 않고 만법도 또한 그러하다. 이미 밖에서 얻는 것에 쫓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에 사로잡히겠는가. 저 양처럼 함부로 물건을 주워 입 속에 넣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師上堂 示衆云 金佛不度爐 木佛不度火 泥佛不度水 眞佛內裡坐 菩提涅槃眞如佛性 盡是貼體衣服 亦名煩惱 不問即無煩惱 實際理地什麽處著 一心不生萬法無咎 但究理而坐二三十年 若不會截取老僧頭去 夢幻空花徒勞把捉 心若不異萬法亦如 既不從外得 更拘什麽 如羊相似 更亂拾物安口中作麽

철불 · 목불 · 니불(泥佛)은 진짜 부처가 아니다. 그런 형상은 나약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세워놓은 방편일 뿐이다. '참 부처는 내 속에 앉아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서 즉시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부처를 외부에서 찾았던가. 반성해야 한다. 부처는 '마음이 부처' 이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열반 · 진여 · 불성 등은 겉을 치장하기 위한 옷과 같은 것일 뿐 허망한 용어들이다. 중생이 곧 부처인데 이런 용어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용어에 얽매여 있으면 번뇌만 치성할 뿐이다. 열반을 얻지 않아도, 진여를 체득하지 않아도, 불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중생 그 자체가 이미 부처이다. 이것은 사자 새끼가 비록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도 운명적으로 이미 백수의 왕인 사자인 것과 같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
열반 등은 겉치장일뿐

마음 속에 질문이 없으면 번뇌는 사라진다. 중생이 이미 부처인데, 다시 무슨 질문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근원은 원래 청정하다. 나의 바탕은 청정하고 허공과 같아서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는가. 다만 마음을 쉬어라. 한 마음이라도 일어나면 만 가지에 허물이 일어나지만,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치를 탐구하면서 '마음이 부처' 인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난 다음 20년이고 30년이고 좌선하며 마음을 쉬어가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진(眞)과 일치된 자신을 발견하리라.

마음은 몸이 만든 허망한 그림자와 같다. 만약 몸이 없으면 마음도 또한 사라진다. 마음이 임시 주인이라 하지만 마음은 허망한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만든 각종 의미와 가치가 어찌 허망하지 않겠는가? 길다, 짧다, 더럽다, 깨끗하다, 옳다, 그르다, 부귀, 빈천 등 이런 개념들은 모두 꿈속의 허깨비와 같고, 허공의 꽃과 같은 것들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은 허공에다 헛되이 손질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설사 무엇인가 얻어 쥐었다 해도 허망한 것들일 뿐이다.

이 법문의 요점은 '참 부처는 내 안에 있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말이다. 또한 경전에서 나오는 열반 · 진여 · 불성 등의 일체 언어의 뜻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나약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워놓은 언어들이다. 만일 중생이 이 언어들의 뜻에 의해서 일단 위급함을 모면했으면 다음으로는 참다운 부처님의 진리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문은 선학(禪學)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두고두고 되짚어 보아야 할 법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⑤ 선정(禪定)

청어갑정좌선망문정선
우불신 견 념왈
이춘 본 불선
헌일 성 생정
위 위

글은 곧 선정이다

禪 : 선 선
妄 : 망령될 망
念 : 생각 념

文曰禪定 妄念不生爲禪 坐見本性爲定 (문왈선정 망념불생위선 좌견본성위정)
글은 선정(禪定)이다. 헛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앉아서 본디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다.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해제 37 한국선과 선어록 8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

'증도가' 에 낱낱이 주석 더해

당나라 조계혜능의 십대제자 가운데 영가현각(665~713)은 〈증도가〉라는 장문의 게송을 지었다. 이에 대해 송나라 남명전 화상은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이라는 주석을 내었다. 남명전 화상은 불혜선사(佛慧禪師)로서 휘는 법천(法泉)이고 성은 시(時)씨로서 수현지방 출신이다.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장성하여 용거산 지문원의 신기(信記) 선사한테 출가했다. 이때 신기 선사는 마당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꿈을 꾼 다음 날에 남명전 화상이 출가한 연유에서 법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후에 경전을 공부하고 운거산의 효순(曉瞬) 선사와 선문답을 거량한 인연으로 깨침을 터득했다. 이후에 대명산 · 천경산 · 운거산 · 남명산 · 장산 등에서 주석했다.

남명전 화상의 〈계송〉에 대해 다시 고려 제23대 고종시대에 서룡연(瑞龍連) 선사가 주석을 붙인 것이 본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이다. 사실(事實)은 곧 주석을 의미한다. 때문에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은 영가현각의 〈증도가〉에 대한 일종의 복주(復注)인 셈이다. 서룡연 선사는 〈증도가〉의 원문보다는 주로 언기의 〈계송〉에다 주석을 붙인 까닭에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범천언기(梵天彦琪)의 주석을 함께 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룡연 선사는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에서 〈계송〉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새로운 기록을 첨부한 것에다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는 인연따라 깨침이 증(證)
부처의 자취가 도(道), 이를 노래함이 가(哥)

또한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저자에 대해서 고익진 교수는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에 붙어 있는 것으로 전광재가 쓴 발문의 기록에 근거해 서룡연 선사는 서룡선로 연공(瑞龍禪老連公)임을 밝혀냈다.

〈영가대사증도가남명전선사계송〉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고종 26년의 간기가 붙은 판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언해본으로도 발간됐음을 보아 널리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구성은 상 · 중 · 하의 3권인데, 〈증도가〉의 본문에 대한 주석은 송나라 범천언기의 주석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서룡연 선사의 독자적인 주석을 가하고 있다.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은 332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서룡연 선사가 붙인 사실(事實)은 상권에는 73곳에 주석을 붙였고, 중권에는 69곳에 주석을 붙였으며, 하권에는 49곳에 주석을 붙여 총 191곳에 주석을 가했다. 반면 여기에서 서룡연 선사가 그대로 인용한 범천언기의 주석은 상권에는 41곳이고, 중권에는 50곳이며, 하권은 50곳으로서 총 141곳에 해당한다. 언기의 주석과 서룡연 선사의 주석이 함께 수록된 부분은 한 곳도 없다.

3권의 구성에서 〈증도가〉의 본문 총 267구 1858자를 기준으로 간주하면 다음과 같다. 상권은 "선정지혜 나 혼자 통달한 것이 아니라/ 항하사의 부처님과 더불어 바탕이 같다/(非但我今獨達了 恒沙諸佛體皆同)"는 대목까지이고, 중권은 "이 깨침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고/ 하늘조차도 역행도 순행도 하지 못한다/(或是或非人不識 逆行順行天莫測)"까지이며, 하권은 "바늘구멍으로 푸른 하늘 보려하지 말라/ 못 깨친 자를 위해 영가가 결단해 준다/(莫將管見謗蒼蒼 未了吾今爲君決)"는 마지막 부분까지이다.

본문의 전개는 〈증도가〉 원문에 대한 남명전 화상의 게송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고, 중간생략을 포함해 필요한 대목에 대한 서룡연 자신의 사실(事實)을 붙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남명전 화상의 행장과 영가현각의 행장을 비롯해 남명전 화상이 붙인 서문에 대해서도 주석을 가하고 있다. 끝으로 남명전 화상의 후서(後序)에 대한 부분까지 주석을 가하고 있다. 이 〈남명전화상송증도가사실〉의 마지막 부분에는 경상 진안동도 안찰부사 도관랑중 전광재가 붙인 발문이 수록돼 있다.

〈증도가〉라는 제명에 대해 남명전 화상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곧 인연을 따라서 깨치는 것을 증(證)이라 하고, 부처님이 걸어간 자취를 도(道)라 하며, 부처님의 자취를 시로 노래한 것을 가(歌)라고 했다. 그리고 깨침에 대한 인가와 증명이 부처님한테 있음을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언급한다. 이와 같이 범천언기의 주석을 통째로 인용한 것은 〈증도가〉의 제명에 대한 증(證)과 도(道)의 의미에 집중한 서룡연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의 목적이 깨침이라면 그것은 지혜의 터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점은 명안종사의 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써 깨침은 반드시 인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인가를 받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일대일로 전승되는 전법(傳法)의 인연을 거쳐서 마침내 출세해 교화의 길에 나선다.

이후로 〈증도가〉의 원문에 대한 낱낱의 언구 내지 구절에 대해 언기의 주석을 인용하고 때때로 〈증도가〉의 원문 및 언기의 주석에 대해 다시 게송으로 때로는 산문으로 구체적인 주석을 가하였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바른정법.바른인연 Ⅱ

불교를 신(信).해(解).행(行).증(證)이라고 하지요.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때 결과물로써 분명 증득하는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한답시고, 앉아 있음에 익숙해져 있고, 삼재, 사주, 철학, 조류방생, 성지순례, 온갖 등 (인등, 108등, 합격의 등, 사업성취의 등)을 고유가 시대에 밤새 밝혀 놓고, 입으로, 말로써 밤새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불보살님전에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방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선방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行(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천하지 않으니 증(證)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써 경전과, 천수경, 이산혜연선사 발원문등에 나오는 신통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앉아만 있고, 말로써는 이제 충분한데 결과물인 신통은 어찌해서 보여주지 못하는가?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티벳 승려들은 또 그런 능력으로 실천하는데...... 기껏 우리가 한다는 것은 가벼운 신병 정도를 치유키 위해 구병시식, 천도재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구병시식, 천도재를 지내보니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적어도 증득한 바 힘이 있다면, 초기 암환자 말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시한부, 희귀병등을 짧은 시간내에 민간요법, 식이요법등이 아닌 정법 기도로써 해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할 때 그 힘은 생길 것이고, 이 신통이야말로 말법시대에 중생의 고통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인 병마를 들어주는 **그 힘(신통 : 기도법력)이야말로 불보살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 2555년 부처님 말씀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말세이고, 말법시대인데, 아직도 말만 하고 있을겁니까? 이 길을 가는 불제자라면 증득한 힘으로 과감히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승.정법.실천도량
주 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1-1
전 화 : 055)633-6555

연등사 (선재불교대학)
대 중 일 동

(주)더나인 칼라 단청 사업단

옻칠단청

천년보장 옻칠이 꼭 필요한 곳 : 사찰단청. 기존 단청 보호. 사당. 문중재실. 일반한옥. 목조주택.

천년고찰을 꿈꾸는 스님에게만 옻칠 단청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단청은 밀풀, 아교, 포리졸을 사용한 화학 재료기법으로 공해는 물론 방충, 방습, 방염의 천적으로부터 보존 · 보호 능력이 전혀 없어 3년 단위로 방충제, 방염제를 살포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옻칠단청기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완전 해결해 줌으로 천년을 보장하는 친환경 천연 칠로서 목재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불화의 맥을 이은 금호, 보응, 일섭, 우일스님 문중의 수석맏제자

불광미술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78-4
단청,탱화,개금 3절장인
만성 조기환
010-6426-2563
(042)254-2567